



신세계 이마트 '대포군단' 위용 되찾을까

2017년 SK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정조준 추신수·최주환·최정·한유섭 등 장타자 즐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인수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2018년 홈런의 힘으로 KBO리그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SK는 당시 한 시즌 팀 홈런 233개를 날렸다. 이 부문 압도적인 1위였다. 이전 해인 2017년엔 KBO리그 사상 최다인 한 시즌 팀 홈런 234개를 기록했다.

SK는 한국시리즈 우승 뒤에도 장타력에 꾸준히 공을 들였다. 홈구장인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이 다른 구장보다 작다는 이점을 활용해 팀의

방향성을 '퐁볼'로 삼았다.

9위에 머문 지난해에도 10개 구단 평균(136개)보다 많은 14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신세계 이마트는 창단 첫해, '대포군단'의 위용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크다. 신세계 이마트는 장타력을 겸비한 내야수 최주환을 영입한 데 이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호령했던 추신수까지 거머쥐면서 장타력 극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세계 이마트의 타선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김원형 신세계 이마트 초대 감독은 최근 추신수의 활용안에 관해 "일단 2번 타자 외야수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시즌 신세계 이마트의 타선은 1번 최지훈(중견수)-2번 추신수(좌익수)-3번 최정(3루수)-4번 제이미 로맥(1루수)-5번 최주환-6번 한유섭(개명 전 한동민·우익수)이 예상된다.

2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한 시즌 2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30홈런 이상씩도 가능하다.

추신수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7시즌부터 2019시즌까지 3년 연속 MLB에서 한 시즌 20홈런 이상씩 날렸다. 60경기 단축 시즌을 치른

지난해엔 33경기에서 5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최근 MLB에서 4년 연속 장타율 4할 이상을 기록할 만큼 수준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추신수가 합류한 신세계 이마트 구단이 2017년 SK가 기록한 한 시즌 KBO리그 팀 최다 홈런 기록(234개)을 갱신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2017년 SK는 최정이 46홈런, 로맥이 31홈런을 기록했고, 한유섭이 29개, 김동업(현 삼성 라이온즈)이 22개의 대포를 날렸다.

30홈런 이상 기록한 선수는 2명, 20홈런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이었다.



25일 열린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연합뉴스

'봄 농구 여왕' 주인공 가린다

27일 여자농구 포스트시즌 8년 만에 4팀 도전장 내밀어

4개 팀이 '봄 농구의 여왕'에 도전장을 내민 여자프로농구 포스트시즌이 27일 막을 올린다.

정규리그 1위 아산 우리은행과 4위 용인 삼성생명 27일부터, 2위 청주 KB와 3위 인천 신한은행이 28일부터 PO 승리 팀끼리 맞붙는 챔피언결정전은 다음 달 7일부터 5전 3승제로 펼쳐진다.

2019-2020시즌은 코로나19 여파로 정규리그 도중 조기 종료하면서 플레이오프가 열리지 않아 2018-2019시즌엔 KB가 통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당시까지는 정규리그 1위가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고 2위와 3위의 플레이오프 승자가 챔피언전에 합류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4위까지 PO에 올라 우승 도전의 문이 넓어졌다.

여자프로농구에서 4개 팀 체제의 포

스트시즌은 2012-2013시즌 이후 8년 만이며, 1위-4위, 2위-3위의 PO 대결은 2011-2012시즌 이후 9년 만이다.

국내 최고 센터이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박지수가 버티 KB를 제치고 2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은 '1위 프리미엄'이 크게 열린 가운데 삼성생명 2년 만에 PO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다.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어린 선수들의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우려된다.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준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B의 안덕수 감독은 "정규리그가 어렵게 끝났지만, 과거는 과거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PO 1차전부터 잡고 빨리 챔피언전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상일 신한은행 감독은 "우리보다 KB가 부담될 거로 생각한다. 해오던 것을 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사실상 무산

IOC, 협상지 브리즈번 선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함에 따라 서울·평양에서 공동 유치는 사실상 무산됐다.

IOC는 25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어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지로 결정하고 하계올림픽미래유치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했다.

남북을 비롯해 카타르 도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라인-루르, 중국 청두와 충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뉴델리 등 2032 올림픽 유치를 신청하거나 유치가 도전한 지역은 IOC와 별인 유치 단계 중 1단계인 '지속 대화'에서 탈락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는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를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북한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올림픽 남북공동유치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 같다고 평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IOC 위원들은 북한 문제를 위해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고 고집했다.

2032년 올림픽 개최는 하노이 정상 회담 후 남북 관계도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이후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맨시티는 가뭄하지 25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뮌헨글라트바흐의 경기에서 맨시티의 카일 워커가 태클을 피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맨시티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내년 시즌 K리그 치열 최대 3팀 강등·승격

2022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 2에서 각각 최대 3팀이 강등 또는 승격을 맞볼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시즌 막바지 흥행 매출업 증가, K리그 2 구단들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위해

2022시즌부터 승강 팀 수를 기존 '1팀(자동 승강)+1팀(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1팀(자동 승강)+2팀(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프로연맹 제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22시즌 정규리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K리그 2 우승팀은 자동으로 1부로 승격하고, K리그 1 최하위(12위) 팀은 강등된다.

K리그 2 2위 팀은 K리그 1 11위 팀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승강 플레이오프(PO)를 치른다.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은 K리그 2 플레이오프의 승자와 K리그 1 10위 팀의 PO에서 결정된다.

K리그 2 4위 팀과 5위 팀이 단판 준플레이오프를 펼치고, 승자가 K리그 2 3위 팀과 단판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K리그 1 10위 팀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맞붙는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재기 불투명

차량 전복사고 수술 회복중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다시 걸을 수 있기까지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UPI통신은 25일 "우즈가 다시 걷게 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전 허리 수술 이력까지 있는 우즈가 다시 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우즈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병원에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고 발목 역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전문의 푸리타 박사는 UPI통신과 인터뷰에서 "회복은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2022년에나 다시 경기에 나올 수 있어도 엄청난 일"이라고 예상했다.

우즈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은 "우즈가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알렸다.



www.cheilsa.co.kr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광양 매입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33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춤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 쉽니다 NAVER **제일사** **광양점**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최신형

대동 트랙터 및 굴삭기 용자 [지원] 안내

58주년(반세기) 전통 향토의 기업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농기구 공급과 신속한 A/S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 기종 용자 이자년 2%

존디어



6110R / 6120R / 6130R / 6135R / 6145R / 6155R / 6175R / 6215R / 6250R

고출력 친환경의 존디어 eVGT 엔진 탑재 최대 40HP의 추가 출력을 제공하는 파워시스템 탑재 유압식 볼리더로 작업기 장착 용이 및 작업성 향상

국산트랙터



PX1300PSC(127마력)

· 25, 35, 40, 45, 51, 55, 58
· 64, 69, 74, 86, 94, 104, 111, 127

하우스형(25-58PS)



25PS / 36PS / 40PS / 45PS / 51PS / 58PS

< 하우스에 맞춤 컴팩트 사이즈 >

굴삭기



친환경 TIER-4 엔진
안전한 4주식 캐노피
배변식 실린더 적용

메크론 운반차



메크론 2450

24PS 디젤엔진 4륜구동

농용전기차



EVO100LA ▶ 48V, 18A ※ 동행용: 1인승

· 최고 20km/h의 빠른 주행 실현
· 최대 300kg 적재와 강한 등반능력(27°)
· 긴 수명과 탁월한 성능의 리튬 배터리 기본 장착

58주년 전통 향토의 기업
대동기계 TEL 722-2378, 752-6620 H-P. 010-2698-6620

대동공업제주총대리점 (제주시 광양로터리 구.농협맞은편) ※ A/S공장: 봉개동 남성기계 721-1472

서귀포 영업소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 동쪽 300미터 한라산 방향
TEL 762-6620, H-P. 010-2699-6620

트랙터, 콤파인(보리,콩), 축산작업기, 농용굴삭기, 관리기, 감귤운반차, 전기운반차, 전기건조기, 자동호스릴, 파종기, 선별기, 치질, 원판쟁기, 퇴비살포기, 스킵로더, 기타농기계